



# 지적장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6:52/21:00



# 사례

전남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실제 일은 장애인이 했지만, 억대의 인건비는 원장 가족이 챙겼다.

60여명의 노숙인과 지적장애인이 생활하는 무안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20년 넘게 지내온 지적장애여성 2명은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해왔다. 새벽 6시 아침식사를 준비를 시작으로 식사시간마다  
배식과 설거지 등 보조 업무를 담당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1. 학교에서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이며 친구라는 점을 알려준다.
2. 특히 발달 장애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표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장애를 숨기는 장면에 대해서로의 생각들을 토론 해본다.
3.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질병의 한 종류로만 여겼고 동시대 서양에서는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 되었던 장애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역사의 자긍심을 심어준다.



## 지적 장애인의 사회 참여 사례

권혁경 학생은 요즘 전자회로 기초 수업에 푹 빠졌다.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씩 꼭 짚고 교수에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신체적 약점을 성실함으로 극복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는 “장애가 있다고 주저앉고 싶지 않았다. 자리를 잡은 후 당당하게 부모님을 찾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웃음을 보였다. 임교훈 씨도 한쪽 시력을 잃었으나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폴리텍에서 배움을 이어 나가 대기업에 취업해 올해로 입사 7년 차가 됐고, 지난해 8월에는 가정도 이뤘다. 임씨는 “장애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가진 장애에 불만을 갖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다”고 했다.

6:52/21:00







## 제작의도

성환에서 살때 교회에 지적 장애인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서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지적장애인들도 다 우리와 같지만 다만 판단능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보이는 경험이었었던 것 같다. 또한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을 못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내가 위에 말했던 사례는 극소수의 사례이지만 누구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으며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또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지적 장애는 직업 갖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조금 느린 것뿐이지 지적 장애인들도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가져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웠다.

Made with MANGOBOARD